

개의 메타포를 통한 인간 군상 연구

- <개라고 불린 사나이>를 중심으로 -

남진숙

(동국대학교 다르미칼리지 · 국문학 · 부교수)*

- I. 서론
- II. 개의 속성과 인간 군상의 유형
 - 1.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은유: '개라고 불린 사나이'
 - 2. 개 같은 인간, 순응과 반항의 양가성
 - 3. 또 다른 개 같은 인간들
- III. 결론

* jindog1@hanmail.net

I.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는 사회적 재난과 동물과의 상관계, 기후위기와 관련한 동물권,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라는 명명 아래 동물을 위한 정치와 비거니즘을 표방하는 급진적 의제가 거론되는 현실 속에서 문학은 채식주의나 반려(동물)의 관계 맺기뿐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미학적 방식으로 ‘동물-되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월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¹⁾

학문적으로도 테리다의 ‘동물로의 전회’²⁾는 동물이 기존의 세계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포스터휴먼 담론이나 트랜스휴먼 담론이 제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해체는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실천할 것을 담론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로 접어든 이후 법학, 윤리학, 철학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도입된 동물윤리 및 동물권(Animal Rights)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과 담론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1) 남진숙, 「동물리터러시로 본 「목님이 마을의 개」의 특징」, 『문학과학경』 23(2)(2024)호, 69쪽.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배경은 이 논문에서 일부 인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2)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지적 변동이 일어나고 문학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문학의 생산과 독해 모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간 중심주의 극복 가능성을 담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반려동물의 일상을 다룬 시가 동물로의 전회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동물의 ‘소중한 타자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김영임, 「반려동물의 시적 구현이 갖는 ‘동물로의 전회’ 가능성 검토」-최근 발표된 동물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0((202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1쪽.

반면 그동안 동물은 오랫동안 문학작품에 등장하여 표상화³⁾되었다. 또 동물은 “풍경으로서의 동물과 실존적 표상으로서의 동물”⁴⁾로 표현되거나 “인간-주체 vs 동물-대상이라는 관습적인 시각”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로 작품 안에서 동물은 상징적, 비유적 표상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개는 인간과 가장 오랜 세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존해 온 존재이다. 개, 강아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속담만 해도 400개⁶⁾가 넘는다는 점은 생활 속에 개가 깊숙이 인간과 함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최초로 가축화한 동물도 개라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개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도 다른 동물에 비하면 가장 많다.⁷⁾ 개의 은유를 활용한 최근 연구로, 「황순원의 〈목님이 마을의 개〉에 반영된 사회적 인식연구」⁸⁾가 있다. 이 논문은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의 관점에서 황순원 문학의 위상을 재조명하며 21세기 지구 생명체의 공생과 인류공동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황순원 단편소설 시간구조의 의미

3) 세계적으로 동물은 민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설, 민담, 우화, 속담 속에 반인반수, 말하는 동물, 신비한 동물이 무수히 등장한다. 또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를 민속학자들은 동물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 속에 존재한다. 마고 드멜로, 천명선, 조중현 옮김,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공존, 2018, 403쪽.

4) 박동역, 「황아는 어떻게 증언하는가: 2000년대 현대시의 동물표상」, 『계간시작』 19권 1호 (2020), 28쪽.

5) DK 백과사전 편집위원회, 이진구 옮김, 『THE DOG ENCYCLOPEDIA』, 지식의 날개, 2019, 20-21쪽.

6) https://blog.naver.com/PostView_naver?blogId=cslee777&logNo=223612010365, 2025.1.5. 한국속담여행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은 속담만 해도 435개가 된다.

7) 배승호, 「동물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어문학』 60(1997), 87~88쪽. 개에 대한 비유는 미천성, 용맹성, 공포성, 충성성, 귀염성, 배반성, 성실성, 부정성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8) 김원희, 「황순원의 〈목님이 마을의 개〉에 반영된 사회적 인식 연구」, 『국어문학』, 82(2023), 295~316쪽.

연구: 〈목님이 마을의 개〉와 〈이리도〉」⁹⁾는 은유적 관점에서 집의 모습을 의미화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개를 중심 제재로 삼은 한국현대소설을 연구 텍스트로 살피고자 한다. 한국현대소설에서 개를 중심 소재로 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황순원의 『목님이 마을의 개』(1948)와 김훈의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2005), 김숨의 『투견』(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제목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한강의 『채식주의자』(2016)에서도 개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그리고 김병언¹⁰⁾의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문학과지성사, 1995)이라는 작품이 있다.

대표적으로 황순원의 「목님이 마을의 개」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폭력성과 윤리를 개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내며, 김숨의 『투견』은 생존 경쟁의 야만성과 인간성의 해체를 투견의 세계로 은유하였다. 김훈의 『개: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은 개의 시선을 통해 인간 세계를 전복적으로 재조명하며, 하위 존재로서의 개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이들 작품은 모두 동물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인간 사회와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은유로 활용한 사례로, 본고가 분석하고자 하는 〈개라고 불린 사나이〉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에 대한 세 가지 슬픈 사건 즉 독립된 이

9) 윤의섭, 「황순원 단편소설 시간구조의 의미연구 〈목님이 마을의 개〉와 〈이리도〉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13(2023), 351~383쪽.

10) 1951년 대구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문학과사회〉 봄호에 「이삭줍기」를 발표하면서 마흔이 넘어 등단했다. 대표 소설집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문학과지성사 1995), 『천치의 사랑』(현대문학사, 1997)과 장편소설, 『木手의 칼』(나남, 1999), 『남태평양』(문학과지성사, 2007) 작품이 있다. 2008년 『남태평양』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야기, 세 개의 에피소드(〈사라진 개를 위한 비명(碑銘)〉, 〈개라고 불린 사나이〉, 〈마음의 이빨 자국〉)¹¹⁾로 구성된 단편소설이다. 이 중 〈개라고 불린 사나이〉의 이야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거론한 두 서사는 본고에서 개의 속성을 통해 드러내려는 은유와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개의 메타포는 개의 속성이 직접 인물과 연관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했듯, 소재목 그대로 개의 메타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제목으로 활용된 경우가 필자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작품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문학에서 개는 비천함, 충성, 소외 등을 내포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개라고 불린’으로 직접적으로 개와 등장인물을 연결시키며 인간 존재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만큼 작품이 희소하다. 둘째 ‘개의 삶’이라는 은유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인간 관계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사회에서 인간 소외나 타인과의 계급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주제가기 때문이다.

셋째 개 메타포를 통해 다양한 인간 유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이다. 박형만, 총무부장, 소장, 나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의 속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생존방식과 인간 군상의 심리 및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 메타포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 인간군상의 유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의 속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11) 이 세 사건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국립대학 교수, 건설회사 임원 그리고 고급 공무원이다.

것이 목적이다.

II. 개의 속성과 인간 군상의 유형

은유는 단순한 수사 장치를 넘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인지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이종 간의 전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은 은유를 “한 개념 영역을 다른 개념 영역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방식”¹²⁾이라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은유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개념적 사유방식이며, 특정한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개의 메타포’ 또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회적 하위 범주에 속한 인간을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규율하는 인지적 틀로 기능한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해 ‘개’라는 명명을 통해 비인격화하고 타자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낙인과 배제를 내면화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인공 박형만이 어떤 점에서 개의 속성을 지녔고 개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멸시받거나 하대받는 사람을 비유할 때 개에 비유하였다.

12)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 3.

1.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은유: ‘개라고 불린 사나이’

〈개라고 불린 사나이〉에는 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제목처럼 그대로 개라고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의 메타포로 작용한다.

내가 아라비아반도의 북부, 카심 지역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워터 타워(WATER TOWER) 현장에 업무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첫 몇 달 동안, ‘개형만’을 ‘개형만’으로 오해했던 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39면)

그날 팽팽이 맞서던 세 가지 설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합세하여 박형만의 ‘박’을 몰아내고 ‘개’를 이름의 첫머리에 올려놓았다고 봄이 옳을 터였다.

종합하자면, 개처럼 생겨 먹었으며, 수틀리면 개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개고기를 남달리 탐하는 데가, 개와 흘레볼은 적이 있는 사내-사람들이 그를 개라고 부르는 소이는 그러했다. (55쪽)

‘나’는 해외 건설 현장¹³⁾에 업무과장으로 파견 근무를 왔다. 그곳에서 잡부 박형만이라는 사람이 왜 개형만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이다.

그 이유가 ‘개처럼 생겨서, 수틀리면 개 같은 행동을 해서, 개고기를

13) 주도는 ‘부라이다’이며 면적은 65,000km², 인구는 1,016,756명(2004년 기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바구니”라는 별칭이 있다고 한다. 작가 김병언은 등단하기 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중동지역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예문에 등장하는 아라비아반도의 북부 카심은 사우디아라비아 중부와 아라비아반도 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주이다. 따라서 작가가 실제 경험한 것을 일부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거친 곳이라는 점에서 이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공간과 개의 속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의 선정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유독 탐해서, 그리고 개와 흘레볼은 적이 있어서’ 등이다. 다 나름 신빙성을 지닌 이유라고 서술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얼핏 보기엔 회화적이고 가벼운 농담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면에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작품에서 ‘개형만’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조롱이나 회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인물에게 부여한 사회적 낙인의 작동 방식을 상징한다. 즉, 개인의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집단의 담론이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셸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의 작동 방식과도 연결된다. 푸코에 따르면¹⁴⁾ 근대 사회는 직접적인 억압 대신, 규범과 감시를 통해 개인을 통제하며, 이러한 권력은 언어와 담론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한한다. 개형만이라는 별명 부여는 곧 주체의 고유한 이름을 지우고, 그를 타자화하고 비인격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개’는 여기서 타락한 존재로 표상되며, 그것이 곧 박형만에게 씌워진다. 이로써 그는 단지 낮은 지위의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추락된 타자가 된다. 소설 속 인물들이 개형만이라는 명칭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를 더 이상 같은 사회적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계층사회에서 비주류 계급이 어떻게 언어적 낙인을 통해 구조적으로 배제당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더 나아가 개형만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낙인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회(직장) 전체가 작동시키는 배제의 체계 속에 있다. 박형만을 향한 집단적 명명은 사회적 규율이 비정상적 존재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4)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출판, 2003.

이러한 분석은 또한 ‘개’라는 은유가 단순히 부정적 속성의 전가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위한 낙인의 언어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개형만이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미 ‘개’로 명명된 순간, 그는 공동체 내부에서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이며, 소통과 공존의 권리에서 벗어난 채 비가시화된 존재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주인공 박형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가 끝난 셈이다. 특히 ‘개 같은 행동’이라는 점은 사회적인 메타포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즉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정적 이미지로, 한 인간을 개에 비유하는 한국의 오랜 관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여기지만, ‘개 같은 인간, 개 같은 인생, 개죽음’ 등의 언어는 부정적인 이미지¹⁵⁾를 개에게 전가시킨 사회적, 언어적 관습이다. 이는 인간 대 개인간(개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관계와 사람들이 개에 대해 갖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박형만의 존재는 현장(사회, 직장) 사람들로 부터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존재로 평가가 내려져 있다. 개라고 명명되는 순간 모든 것을 함축한다.

“개형만이가 또 냄새를 맡았구나” “개형만이는 잠도 안 자나? 역시 개형만이는 개형만이야” 모두들 어떤 인물의 이름일 게 분명한 세 음절을 입에 담았다. (중략) 못마땅하다는 듯 똥한 표정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다는 듯이 히죽히죽 웃는 표정도 있었다. 대다수의 표정엔 어느 한쪽으로

15) 반대로 요즘은 반려견 1000만 마리 시대에 젊은이들 사이에 ‘개웃기다. 개재미, 개잘쌈’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신조어는 새로운 사회적 메타포로서 작용하지만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치우쳤을지언정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공존했다. (41쪽)

일상적으로 박형만이라는 이름 대신 개형만으로 부르는 현장 사람들. “재미있다는 듯이 히죽히죽”이라는 것에는 조롱하듯, 비웃는 듯한 의미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이 역시 부정적이면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다.

잡부와 관리직을 나누는 행위에서 관리직들이 현장에서 가장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잡부에 대한 인식도 같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계급을 나누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공동체적인 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지만, 위 예문에서 박형만은 개형만으로 불림으로 그의 존재는 곧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며 그의 존재는 개로 한마디로 평가돼 버린다. 개라는 명명으로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부터 어렵게 된다.

‘인간은 개다’라고 한다면 이때 개는 ‘망나니’의 의미이고, 개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은 대체로 부정적 특성이 드러난다. 그 이유는 개의 특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개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 부정성과 미천성을 지니는 이유는 첫째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는 개의 행태,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는 식생활, 암수 간의 문란한 교미가 그것이다.¹⁶⁾

박형만에게도 이런 개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직들이 먹는 자리에 불쑥 나타나 술을 요구하거나, 예배도 안 하고 양고기를 자기 음식인 양 먹는 것, 그리고 고집사에게 어찌 됐든 폭력을 휘두른 것 등은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

16) 배승호, 앞의 논문, 같은 곳.

는 행위이고 일반적인 행동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또한 납품 직원에서 리스트와 안 맞는다는 등, 상품이 하품이라며 시비를 거는 모습은 모두 현장에서 박형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개’의 존재로 귀결된다. 그것이 정당한 이야기이거나 행동일 때에도 말이다. 따라서 박형만을 ‘개라고 불린’ 그 평가 자체만으로도 사회조직에서 구성원들이 그를 개라고 낙인찍고,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서 존재성을 더 약화시킨다.

‘개’라는 별명 부여는 단순한 조롱이 아닌, 고프만의 용어를 빌리자면 ‘사회적 낙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고프만은 낙인을 “어떤 사람에 대해 기존 사회가 부정적으로 규정한 속성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⁷⁾ 박형만은 개라는 명명 아래 정상성과 인간성으로부터 이탈한 존재로 간주되며, 직장 공동체 내에서 점차 비가시화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결국 박형만이 쫓겨나서 귀국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개의 메타포’는 단지 개라는 동물의 속성을 인간에 전이한 수사적 장치를 넘어, 인간 존재를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인지적 틀로 기능한다. ‘인간은 개다’라는 은유는 ‘사회적 타자’, ‘비정상’, ‘하위 존재’라는 개념으로의 전이를 통해 인간을 비인격화한다. 이는 ‘하위 존재는 동물이고, 규율되지 않은 자는 짐승’이라는 인식 체계가 문화적 관습과 맞물려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박형만에게 씌워진 ‘개’라는 명명은 단지 외모나 행동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은유적 인지틀에 따라 그를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낙인찍는 과정이다. 그 결과 그는 소통의 권리를

17) 어빙 고프만, 윤선길·정길현 번역,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박탈당하고, 이름이 사라진 채 ‘개의 개념적 범주’에 귀속된다.

2. 개같은 인간, 순응과 반항의 양가성

개는 흔히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동물로 충성심이 강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박형만은 순응이나 복종보다는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다. 그가 개형만으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뻔뻔하기까지 하다. 관리직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잡부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주눅도 들만 하지만 박형만의 말과 행동은 오히려 당당하다.

잠시 후 보다 높은 억양의 말 한마디가 곧 추세우고 있던 우리들의 귀에 또렷이 전달됐다.

“누군 입이고 누군 입이 아잉교?”

(중략) 어땠든 한갓 잡부 한 사람이 관리직들의 회식 분위기를 휘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 밖이었다. (중략) 밖으로 나갔던 직원이 되돌아와 총무부장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하자 총무부장이 다시 곁에 앉은 소장과 무슨 말인가 은밀히 나누고 나서 벌레 썩은 얼굴이 되어 보고를 했던 직원에게 뇌까렸다 “조용히 혼자만 들어와서 몇 잔 하고 가라 그래!”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건방진 새끼! 개잡부 주제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야…….”

말은 그랬지만 총무부장은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기색을 애써 숨기지도 않는 채 내용물이 온전한 조니 위카 한 병을 가져가라고 했다. (40-42쪽)

관리직들이 술을 먹는 저녁 자리에 문을 갑자기 두드리면서 거침없이 “누군 입이고 누군 입이 아잉교?”라는 말과 함께 결국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 술까지 받아서 가는 행위는 그의 당당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박형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침없는 말은 다음에서도 계속된다.

“맛있능교?” …… “사람이 물어보는데 와 대답을 안 하능교? 개형만이 가 물어봐서 기분 나빠서 그러능교?” 그제서야 고집사가 외면을 한 채 맛있지 그럼, 하고 찹찹하게 대꾸했다. (중략)

“그라고 그렇지, 와 맛이 없겠노. 쥐새끼들맹키로 방에 숨어가지고 저 거들만 맛있는 거 골라서 뽀시락뽀시락 훔쳐먹어쑤는데……” (47쪽)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박형만이 식사 때만 와서 양고기를 먹고 나가면서 고집사에게 한 말이다. 후반부의 대화는 총무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방안에서 사람들을 모두 싸잡아서 거침없이 말을 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도둑들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박형만이 조롱과 비판을 섞어 한 말이기도 하다. 박형만에게 한 조롱이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한편 그는 늘 꼴꼴하게 나가지는 않는다. 총무부장이 “야, 너 아가리 좀 닥치지 못해! 보자보자 하니까 이게 정말……”(48쪽)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고 이 주둥아리에서 또 무슨 말이 헛나와부렸능갑네. 그러믄 잘 들 잡수이소. 소인은 얼추 머었으니까 인자 가보겠심더.” (48쪽)

하며 아슬아슬 그 자리를 벗어난다. 총무부장의 말에 순응하듯. 그러나 그 순응의 태도와 말은 진심의 순응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선을 알고 멈춘 정도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그는 약한 순응, 반항을 반복해나간다.

위터타워 현장엔 적극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 자재 담당은 납품가를 높임으로써, 경리는 신속한 대금 결제를 밀미로, 중기나 기술직은 특정 브랜드 선정의 대가로, 저마다 알게 모르게 구린내를 통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선 소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아니 소장 스스로가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비리의 풍토를 조성했고 그 과실의 일부를 상납받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보다 정확한 진단인지 몰랐다. 그 근거로서 내 숙소의 룸메이트였던 건축과장이 슬며시 흘린 얘기가 있었다. (중략) 일부 악랄한(?) 기능공들이 감히 훔친 빵의 분배를 요구하면 본사에 투서하겠다는 등 불평과 협박을 늘어놓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62-63쪽)

박형만이 그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비리에 대해 협박하는 사람들과의 협상 타결을 잘했기 때문으로 유추한다. 즉 “관리직들의 비리에 대해 박형만이라는 편리한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비리의 정보는 그리하여 박형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64쪽) 그래서 박형만은 저항을 할 수 있는 일부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응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형만은 잡부인데도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 관리자들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협상으로 처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를 언론에 비유하는 개의 특징과 연결하면 박형만은 랩독(Lap dog)이나 가드독(Guard dog)과 같은 역할을 일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한다. 박형만이 애완견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 관리직들과 동화는 될 수

없어도, 그들이 지닌 권력에 도움을 받고 있고 그 그늘에 일부 있다는 점에서 반쯤 랩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박형만도 결코 그 권력 비리의 구조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동화까지 아니더라고 기생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부장과 소장이 박형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시켜주는 하나의 매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 기능공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비견 즉 가드독(Guard dog)이라고 할 수 있다. 가드독은 언론이 기득권에 편입되어 또 하나의 권력이 된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 아예 권력의 한 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지키려 했던 대상마저도 공격한다. 대단한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잡부가 그래도 발언권도 세고 거침없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일부 가드독의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누가 됐건, 적당히 어르고 뺨칠 줄 아는 그의 비상한 재주(60쪽)”는 그를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때론 자신의 랩독으로도, 때론 가드독처럼 만든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박형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속으로만 부르르 하지 실제 말과 행동으로 그를 제재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고 나른 현장이 쏸뻔 심심해질 겁니다.”

그 말뿐이었다. 관리직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올 걸로 예상했던 내가 무색하게도 개형만은 그 한마디만 했던 것이다. (78쪽)

박형만의 강제 귀국 전날 밤 그는 어떤 반항도, 어떤 저항도 원망도 없다. 물론 경찰이 강제 귀국을 조건으로 풀어줬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는 회사의 명령, 소장이나 총무부장의 입김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는 자포자기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쁜 현상이 쏴매 심심해질 겁니다.”라는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순응의 의미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상기시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박형만이 조직에 순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어떤 저항이나 이유를 달지 않는다.

개의 속성에는 주인을 따르거나 때로는 으르렁거리거나 주인을 물기도 하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 박형만은 순응과 반항의 경계에서 이중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회사에서 강자인 총무부장이나 소장에게 직접적인 반항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즉 살아 남기 위해 복종하는 개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박형만은 소장 and 총무부장에게는 마치 사냥을 마친 사냥개와 같은 존재이다,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주인이 잡아먹는다. 따라서 박형만은 소장 and 총무부장에서 그만 내쳐진다. 박형만이 건설 현장에서 오히려 큰 문젯거리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출국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박형만은 순종하는 개이면서도 때로는 주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존재이고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직에 길들여진 듯하면서도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 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응과 반항 혹은 저항, 비판의 사이에 그는 개형만으로 존재한다.

3. 또 다른 개같은 인간들

총무부장과 소장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지키려는 유형이다. 그들의 권력은 인심을 베푸는 듯하지만 박형만을 통해 그것을 유지하며 충실한 하수인으로서의 개를 찾는다. 처음엔 박형만이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하수인 노릇을 했지만 그들은 곧 박형만이 충견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늘 눈에 가시인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박형만이 완전한 순종,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자들 입장에서 박형만은 왁더독(wag the dog)¹⁸⁾이 되기 전에 빨리 없어야 할 존재이다. 총무부장과 소장은 언론에 빗대면 일종의 슬리핑독(sleeping dog)과 같다. 이 유형은 잠자는 개를 뜻하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언론을 의미한다. 언론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해진 경우에 슬리핑독으로 전락했다고 본다. 한편 소장과 총무부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인 동시에 권력을 또한 지키는 교활한 수호견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회사에 손해가 될 때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것을 쳐버리기 때문이다.

개형만이 당한 피해는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서에 연행되어 일주일 감금당했다.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하루에 한 차례씩 경찰서 안마당으로 끌려나와 등에 끄찍스런 금이 가는 채찍질을 감수해야만 하는 체

18) 주식시장에서 ‘왁더독(wag the do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뜻은 ‘개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선물시장을 의미하는 꼬리가 현물시장인 몸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이다. 주식시장에서 주도적이고 가장 큰 투자와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선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는 일종의 차익거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별이 곁들여졌다. (중략)

개형만에게 내려진 처분은 강제 귀국이었다. 그것도 회사측의 결정이 아니라 경찰의 명령이라고 둘러댔다. 경찰이 강제 귀국을 조건으로 가벼운 체벌만으로 폭력범을 풀어줬다니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업무의 담당인 나를 제쳐놓고 개형만을 구제한다치고 뻔질나게 경찰서를 드나들었던 총무부장의 말이니 그 진위를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77-78쪽)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것이 순전히 ‘경찰의 결정이었을까’ 하고 의문을 남게 한다. 무엇인가 총무부장은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딜을 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총무부장 역시 또 다른 개 같은 인간 군상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개 같은 인간인가? 질문을 한다면 표면적으로 나는 개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개 같은 유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일단 집회에 참석해보기로 약속하고 말았다. 그의 휘하에 들어오게 된 부하 된 입장으로서 처음부터 밋게 보여선 덕이 될 게 없을 것이라는 관점의 측면 지원을 받은 결과이기도 했다. 하긴 총무부장 자신도 좀 비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은근히 나로 하여금 그런 보신책을 강구하게끔 유도했었다.

귀찮게 여길지언정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나쁠 까닭은 없었다. 게다가 나에겐 신자가 되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으나 거기에 ‘절대로’라는 구속이 따라붙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개처럼 보인다.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총무부장의 권유 이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조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한 선에서 유지한다. 조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총무부장의 말을

거스를 만큼의 용기도 없는 인물이다. 대신 조직에 100% 복종하거나 충견과 같은 유형은 아니다. 나는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보편적인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물 군상이다. 이는 개의 속성과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그도 개의 한 유형에 속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행여 그의 ‘개’를 그 ‘잘난’교육의 손길이 쓰다듬었더라면 그때 사직서를 던지고 그와 함께 비행기를 탈 결심을 골백번 했으면서도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나처럼 나약한 인물을 또 하나 생산해내는 데 그쳤을 거란 생각이 그것이다. (78쪽)

박형만을 옹호하지도 못한 ‘나’는 나의 나약함에 괴롭다. 나는 생각한다. ‘박형만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잡부였지만 현장에서 것처럼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기 있게, 할 말 하는 사람으로 대처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개’라도 비유하는 것은 그의 제멋대로의 행동, 정제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개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개성, 임기응변에 능한, 현장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등의 비유적 언어로 환원되며 ‘잘난’ 교육과 대조를 이룬다. 잘난 교육에는 총무부장, 소장, 나와 같이 관리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그 ‘잘난’ 교육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는 박형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비리를 밥 먹듯 저지르고, 박형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도 못 하는 사람들, 더 힘센 사람 앞에서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개의 한 유형이다. 다만 나는 조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야성을 일정 정도 내재한 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야

성이 강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실제 개의 야생성보다는 덜 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과연 개는 누구인가, 박형만만 개 같은 인간일까?’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이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간교한 동물이며 칭송을 받아 마땅할 행위 위에 어떻게 정반대의 허물을 뒤집어씌울 수 있는가에 대한 예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74쪽)의 서술처럼 박형만이 더 인간다운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긴다.

나에게는 박형만의 출국이 표면적 슬픔이지만 진짜 슬픔은 개라고 불린 사나이와 인간의 관계에서, 삶에서 개 같은 인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즉 인간이 개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 때 이것은 삶에서 또 하나의 슬픈 사건이 된다. 이 작품에 개는 등장하지 않지만 개 같은 인간 군상을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은유는 단순히 문학적 수사 장치를 넘어서, 인간 인식과 사유의 핵심 구조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개의 메타포’ 역시 단순한 언어적 유희가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 군상을 이해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형만’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희화화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하위 존재’로 위치 지워진 박형만의 사회적 타자를 드러내는 은유 체계의 일부라는 점과 인간 군상의 여러 존재를 드러내는 한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결론

본고는 김병언의 〈개라고 불린 사나이〉에 나타난 개의 메타포를 통해 현대 조직 사회 속 다양한 인간 군상의 특성과 그 사회적 의미와 은유를 고찰하였다. 특히 ‘개’라는 존재가 단지 부정적 수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구분하고 분류하며 배제하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형만이라는 인물은 외모,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질이 아니라, ‘개의 속성’을 덧씌운 명명 행위를 통해 낙인찍히고 타자화된다. 이는 사회가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특정 인물을 ‘관리’하고,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개의 메타포는 그 자체로 타자 규정의 언어, 혹은 비인간화된 권력 질서의 은유로 기능한다.

또한 박형만이 조직 내에서 보이는 순응과 반항의 양가성은, 단순한 성격의 복합성이 아니라 주체가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길들여지고 또 이탈을 시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철저히 타자화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체제 내에 머무르려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권력에 포섭된 인간 주체의 존재론적 불안정성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관리자들과 화자 ‘나’ 역시 ‘개의 속성’을 내면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유형화로 연결된다. 즉 ‘개 같은 인간’은 주인공 한 명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 속에 드러나는 통제와 복종의 메커니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의 메타포’가 단순한 상징이나 조롱

을 넘어, 사회적 낙인, 권력 구조, 인간 내면의 양가성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유의미한 해석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동물을 메타포로 삼아 인간을 설명하는 문학적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경계, 타자성, 사회적 윤리성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연구 및 인간동물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병언,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 문학과지성사, 1995.
- 김영임, 「반려동물의 시적 구현이 갖는 ‘동물로의 전회’ 가능성 검토 -최근 발표된 동물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0(2021), 11~38쪽.
- 김원희, 「황순원의 〈목님이 마을의 개〉에 반영된 사회적 인식 연구」, 『국어문학』, 82(2023), 295~316쪽.
- 남진숙, 「‘동물리터러시’로 본 「목님이 마을의 개」의 특징」, 『문학과 환경』 23(2) (2024), 69~94쪽.
- 마고 드멜로, 천명선, 조중현 옮김,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공존, 2018.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출판, 2003.
- 박동익, 「황야는 어떻게 증언하는가: 2000년대 현대시의 동물표상」, 『계간시작』 19(1), 2020.
- 배승호, 「동물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어문학』 60(1997), 83~94쪽.
- 어빙고프만, 윤선길 · 정길현 번역,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 윤의섭, 「황순원 단편소설 시간구조의 의미연구 〈목님이 마을의 개〉와 〈이리도〉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13(2023), 351~383쪽.
- 프란스 드 발, 이충호 옮김,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세종, 2019.
- 패트리샤 맥코넬 지음, 신남식 · 김소희 옮김,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페디앙북스, 2011.
- 인간동물문화연구회 엮음, 『인간동물문화』, 이담, 2012.
- DK 백과사전 편집위원회, 이진구 옮김, 『THE DOG ENCYCLOPEDIA』, 지식의 날개, 2019.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3.
- 참고사이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slee777&logNo=223612010365>, 2025.1.5.(개 한국속담모음)

【국문초록】

본고는 개의 메타포를 통해 인간 군상의 다양한 유형과 그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병언의 단편소설, 「개를 소재로 한 세 가지 슬픈 사건」의 세 개 에피소드 중 두 번째 사건, 〈개라고 불린 사나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본 바, 박형만에게 부여된 ‘개형만’이라는 명명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타자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언어를 통한 규범화와 배제의 사회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응과 반항의 양가성’ 측면에서는 박형만이 체제에 복종하면서도 때때로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언행을 보인다. 이는 권력 구조 내에서의 인간 주체의 복잡한 위치를 드러낸다.

셋째 ‘또 다른 개 같은 인간들’의 분석을 통해, 박형만을 둘러싼 관리자들과 서술자인 ‘나’ 역시 개의 속성을 내면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들은 개의 메타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박형만의 타자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개의 메타포’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인간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 낙인, 관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유효한 분석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해석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동물 메타포와 인간동물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김병언, 개의 메타포, 인간 군상, 사회적 낙인, 배제, 순응, 반항, 은유, 인간동물
연구

【 ABSTRACT 】

A Study of Human Groups through the Metaphor of Dogs: Focusing on <The Man Called Dog>

Nam, Jin Sook

(Dongguk University of Korea, Dharma College · Korean Literature ·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examine humans and their statuses within social structures through the metaphor of dogs. To this end, the study focuses on “The Man Called Dog,” the second episode in Kim Byung-Un’s short story collection *Three Sad Incidents with Do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tigma and exclusion, the name “Gaehyungman” given to Park Hyung-man functions not merely as a nickname but as a symbolic device that isolates and otherizes the individual from the community. This reflects a social mechanism of normativization and exclusion through language.

Second, in terms of the ambivalence between conformity and rebellion, Park Hyung-man complies with the system while occasionally displaying speech and actions that create fissures within it. This reveals the complex and unstable position of the human subject within a power structure.

Third, through the analysis of other dog-like figures, it is shown that the managers and the narrator (“I”), who surround Park Hyung-man, also internalize or uncritically adopt canine attributes. Through the dog metaphor, they provide the very conditions that enable his othering.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etaphor of the dog is not a mere rhetorical figure but serves as a powerful analytical tool to expose the operations of power, stigma, and relational dynamics within human society.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critically illuminates human relationships and social realities through animal metaphors and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scope of literary analysis in human-animal studies.

Key words: Kim Byung-Un, Dog Metaphor, Human Figures, Social Stigma, Exclusion, Conformity, Rebellion, Human-animal Studies

투고 접수: 2025. 03. 17.	심사 완료: 2025. 03. 31.	게재 결정: 2025. 04. 10.
----------------------	----------------------	----------------------

